

# ‘나눔의 집’ 젊은 후원자들 ‘뿔났다’ “후원금 돌려받아 할머니께 드릴 것”

### 20~30대 후원자 10명 반환소송 나서...취준생도 포함 “기부금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기부자 책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운영 법인이 후원금 배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조성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후원자들이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에서 무료 변론을 맡은 김기운 변호사에 따르면 나눔의집 후원자 10여 명은 이번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 후원자들은 “소송을 통해 문

제를 제기해 단체 회계를 직접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단체들이 부당하게 착복한 후원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기금 이혼 역사적 상처가 닳나게 한 점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 모두에게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후원자측은 인터넷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이날(2일) 기준으로 총 1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반환액 규모는 총 2500만원 정도로 최대 반환액은 강민서 한양대학교 철학과 학생이 제기한 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합의금 900만원을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4월 기부했다는 강민서씨는 “교수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해 발생한 1년간의 등록금 손실액과 정신과 치료비용 금액”이었다며 “약 2000만원가량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시민인 제가 거액을 기부한 것은 당연히 저보다 힘든 일을 겪으신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기부의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에 반환을 신청한다”며 “반환을 할 경우 더 투명한 단체 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다시 기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이 중 취업준비생과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후원해 총 132만원을 낸 후원자도 있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5만원씩 총



200여만원을 낸 김영호씨(28)는 “기부금은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아 대리로 집행해야 하며 합부로 유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부자의 책임”이라고 소송에 참여한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보다는 소송을 통해 후원금 반환을 받을 예정”이라며 “대부분 후원금을 반환받아 다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후원금으로 토지 약 6억원을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나눔의집 직원 7명은 나눔의집의 막대한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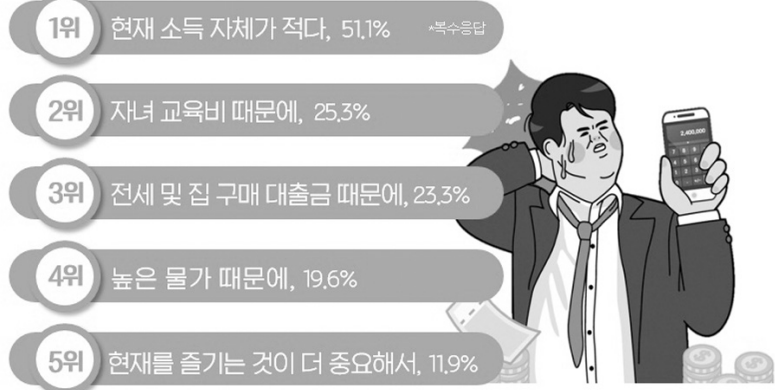
## 직장인 80% “현재 노후준비 부족한 편”

응답자 ‘절반’ “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 직장인 74.1% ‘노후준비 잘 못하고 있다’

\* 30.40대 직장인 2,385명 대상 조사, 자료: 잡코리아X알바몬

Q. 노후준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본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38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1%가 ‘부족한 편이다’고 답했다.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복수 응답)로는 ‘국민연금’(50.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저금 및 저축(37.2%) △개인연금(14.8%) △부동산 투자(7.7%) 등으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복수 응답)로는 ‘현재 소득 자체가 적다’(51.1%)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자녀 교육비(25.3%) △전세 및 집 구매를 위한 담보 대출 상환(23.3%) △높은 물가(19.6%) △현재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11.9%) △부모님 부양(7.6%) 등의 순이었다. 김윤호 기자

## ‘캐디 총탄 부상’ 조사결과 이달 내 발표

육군본부 “사격장 관련 시 피해자 보상 절차도 함께”

전남 담양의 군부대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캐디가 머리에 실탄을 맞은 사고와 관련한 군경찰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2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육군 31보병사단 군경찰이 조사 중인 골프장 캐디 총탄 사건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육군은 현재 군경찰이 조사 중인 정밀감식 등 조사 결과가 다음주 내로 나오면 최종 분석·종합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발표할지, 아니면 광주나 담양에서 브리핑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4월23일 오후 4시40분쯤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던 캐디 A씨(29·여)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정수리 부위에서 5.56mm 탄환의 탄두가 발견됐다.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고 직후 해당 사격장을 폐쇄한 후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이튿날인 24일에는 골프장 측에서 사고 전 골프장에서 발견된 총알이라며 녹이 슨 탄환을 군부대에 가져오기도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군 사격장과 관련된 시 사격장 안전대책 등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상 절차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종합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빠르면 이달 중순, 늦으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폭염 심할수록 에어컨 화재 증가...화재 71% 6~8월 발생

폭염이 심할수록 에어컨 화재도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에어컨 화재 건수는 총 692건으로 그중 71%인 493건이 여름철인 6~8월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과열과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3%(50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쌓인 쓰레기와 담배꽂이 초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 진돗개 우리에 손 넣었다가 광주서 3세 어린이 손가락 잘려

3세 남아가 개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물려 증상을 입었

다. 2일 광주 광산소방서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전동 한 공장에서 A군(3)이 개에 손가락을 물렸다.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A군은 잘린 손가락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부모와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개를 발견하고 철조망 안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문 개는 3살 된 진돗개로, 공장 측은 철조망으로 만든 우리에서 개를 키웠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